

2027년 개교 '광주 AI영재고' 수백억 부지 비용이 발목잡나

시, 역대급 재정난 속 총 사업비 20% 토지 매입비 200억원 부담 첨단 3지구 벗어난 대체 부지 물색에 AI 집적화 취지 훼손 우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설립 근거를 마련한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가 이번에는 수백억원 대의 부지 비용 마련에 발목이 잡혀 사업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공포돼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광주 AI 영재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통령 지역 공약이기도 한 광주 AI 영재고 설립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이 2022년 12월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했으나, 다음 절차인 법사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3차례나 보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오다 결국 해를 넘겨 가까스로 처리됐다.

광주시는 현재 총 사업비 1038억원(전액 국비) 중 AI 영재고 시설설계비용 31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AI 영재고는 기본 계획상 광주 북구 오룡

동 첨단 3지구에 2025년 착공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건립 예정 부지인 광주과기원 건너편 부지(2만3100여㎡)를 매입하기 위해선 2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지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첨단 3지구 산업단지 조성 원가는 ㎡당 90여만원(평당 300여만원)으로, 학교 부지인 점을 고려해 일부 감액조정을 하더라도 역대급 최악의 재정 위기 속에서 총 사업비 20% 수준의 땅값은 큰 부담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차선책으로 광주과기원 내 부지도 검토했지만, 광주과기원 측에서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 건립' 등 다른 활용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일단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추진 사례 등을 근거로 입지를 한차례 정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광주 전역을 대상으로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학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광주과기원 부설 영재고가 부지비

용 등을 이유로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광주과기원'이 있는 첨단 3지구를 벗어나는 것은 'AI 영재교육'의 연계성·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에 낙점했던 첨단 3지구 부지와 여러 대체 부지 등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교육 전문성 등 다양한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해 정부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절차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예타 면제 확정 후 이뤄질 적정성 검토 전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AI 영재고의 정원은 150명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무학년·졸업학점제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졸업학점 155학점 중 20% 수준에서 AI 융합 교과를 편성하며 광주 AI 데이터센터, 실증 장비 등 기반 시설과 GIST의 AI 교육·연구 인력을 활용해 교육한다. 교원은 33명이 배치되며, 영재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 1인당 학생수 4.5명 수준을 유지한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도 정원의 7%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와대 누적 관람객 500만 명 돌파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에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지난 10일 설날에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서울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

/연합뉴스

총선 핵심 의제는 '고물가·고금리'·'저출생 대책'

매니페스토본부, 유권자 10대 의제 공개... 사회갈등·양극화 이슈

유권자들은 올해 총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로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따른 민생 안정 대책을 첫 손에 꼽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14일 발표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유권자 10대 의제'로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을 꼽은 유권자가 응답자의 24.3%로 가장 많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올 총선을 유권자 중심의 입법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내기 위해 9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했다. 이후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사회여

론연구소(KSOI)에 의뢰,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유권자들은 또 저출생 완화를 위한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 (15.7%), '사회적 갈등 완화' (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13.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8.9%) 등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치방안 마련' (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 (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 (4.8%),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 (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 (2.4%) 등도 관심 목록에 포함됐다.

과거 총선의 핵심 의제 첫손에 꼽혔던 '서민 삶의 질 향상'이 물가·금리로 구체화됐다. 분석이 나온다.

지난 총선 당시 이슈로 떠올랐던 '집값 안정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 등의 부동산 의제가 사라지고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육아·보육시설 확충',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21대 총선(2020년), 20대 총선(2016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슈였던 '부패 카르텔 해체', '공직자 부패절제' 등도 빠졌고 '사회적 갈등 완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데 따른 대책에 대한 고민들이 새롭게 떠올랐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이라는 기후 환경 의제도 핵심의제로 자리잡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반드시 결혼" 청소년 10명 중 3명 뿐

10여년 만에 '반토막'... "결혼하면 자녀 가져야" 20% 불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0여 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19%에 그쳐 향후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 이 같은 가치관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4일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5~7월 전국 초·중·고교생 7천718명(남학생 3983명·여학생 373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9.5%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73.2%가 해당 항목에 동의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반토막도 못되는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82.3%→39.5%)보다 여학생(63.1%→18.8%)에게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여학생을 중심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확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19.8%에 그쳤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는 60.6%가 동의해 더는 청소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와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각각 81.3%, 91.4%였다. 특히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청소년은 52.0%였다. 청소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82.0%(복수응답)가 '성격'을 꼽았다. /연합뉴스

전남도,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탄력

정부, 예타 면제 추진...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방안을 추진해 전남도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을 비롯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의 경우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집적, 활발히 교류·협력하는 첨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입주할 기업수요가 확정된 이후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고흥군 봉래면 일대 172만 9000㎡(52만 평)에 국비 3800억 원을 들여 1공구(액체발사체기업·61만 7000㎡), 2공구(고체·111만 2000㎡) 조성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민간 발사장 및 발사체 조립시험시설 등 관련 인프라(3880억), 발사체 기술사업화센

터 및 시험·인증 인프라(2000억), 우주발사체 사이언스컴플렉스(1062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건립 등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남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산업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정부는 클러스터별 협의체, 소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광양항 항만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작업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하는 것을 포함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관련,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세계적 수준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 고흥이 세계 7대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可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 상담(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점(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필드 매니저 교육생 모집

서진그룹 엘리체 필드 매니저(캐디) 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인원	- 40명 ~ 50명, 남·여
교육비	- 없음, 교통비 본인 부담
교육기간	- 30일, 단기속성코스
취업	- 수료후 100% 취업보장 - 화순, 함평 엘리체골프장
수익	- 월 300~500만원 - 능력에 따른 차등 수입
특전	- 교육원 수료증 수여 취업후 숙식 제공 - 화순, 함평 엘리체골프장

- 모집기간 : 2024년 2월 5일 ~ 2월 16일까지
- 면접 : 2024년 2월 19일 ~ 2월 21일(3일간)
- 합격자통보 : 2024년 2월 22일
- 지원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본 각 1통
- 교육장소 : 이론교육 - 광주본사, 실전교육 - 골프장
- 접수방법 : 팩스(061-371-2580) 또는 방문접수
- 연락처 : 061-320-7700, 061-373-7733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 합격자는 즉시 폐기합니다.

서진그룹 엘리체 교육원장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2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2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2월 15일
주식회사에소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278(백운동)
청산인 이경호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레노방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